중국의 도련선(島鏈線) 전략에 대한 지정학적 해석

이영형 국제평화연대연구소

본 논문은 해양력이 동아시아 해양공간에 미치는 지정학적 파장과 그 성격의 문제를 다룬다. 마한의 도서국가지배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해양력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해양력의 지정학적 성격을 파악한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21세기 현재 중국이 도련선 전략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있는 지정전략적 성격과 그 파장의 문제를 조사한다. 지난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일본이 해양력에 기초해서 동아시아 해양공간에서 세력권 확장을 기획하는 대동아공영권 정책을 구체화했고, 21세기에는 중국이 도련선 개념을 구체화하면서 동아시아 해양공간을 관리하려는 지정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의 도련선 전략이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외교의 해양세력 의존정책이 21세기 현재에도 유용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주제어 : 지정학, 해양력, 동아시아 해양 공간, 도련선, 반(反)접근/지역 거부, 삼각형 전진기지

www.kci.go.kr

Ⅰ. 들어가는 말

국제정치과정은 유라시아 주변부 공간을 둘러싼 세력권 확장 경쟁의 역사였다. 20세기까지는 유라시아의 유럽지역 림랜드(Rimland) 공간을 둘러싼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이었고, 21세기는 동아시아 림랜드 공간과 해양 도서를 둘러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갈등구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일본이 대동아공영권 개념을 도입하면서 동아시아 해양 공간에서의 세력권 확장을 기획했고, 21세기에는 중국이 도련선(島鏈線) 개념을 도입하면서 동아시아 해양공간에서의 세력권 확장을 기획하고 있다. 도련선은 태평양의 섬(島)을 사슬(鏈)처럼 이은 선(線)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의미한다.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 해군력의 팽창을 저지해야 하는 경계선이기도 하다.

지구촌을 관리해 온 경험이 있는 국가들은 해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영국의 랠레이(W.Raleigh), 미국의 마한(A.T.Mahan), 미국의 국무장관을 역임한 존 덜레스(J.F.Dulles), 소련의 고르쉬코프(S.Gorshkov) 제독, 중국의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을 역임한 류화칭(劉華淸) 등이 주장하는 내용에서 공통점은 해양력(Sea Power)[1] 발전에 있다. 미국 등 해양세력의 대륙세력 봉쇄정책과 중국의 도련선 전략 등이 해양력에 기초된 지정전략에 있다. 해양력을 강조하는 지정학적 흐름은 마한에 의해 체계화되었지만, 해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고는 과거와의 대화 속에서 지속되었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 봤을 때, 지구촌을 관리해 온 패권국가들 중에서 해양력이 제외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서 이는 보다 명확해 진다.

한국이 동아시아 해양 공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해양팽창 문제가 한국의 국익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해양력 문제

1) 해양력(Sea Power)은 '해양세력', '해상권력', '해상무역'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하며, 해운력이나 해군력과도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특별한 지적이 없는 한 '해양력'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www.kci.go.kr

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글은 중국의 해양력과 태평양을 중심으로 구획되고 있는 도련선 정책을 분석하면서, 해양세력에 의존된 한국외교의 경로의존성[2]에 직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중국의 성장에 맞물려 한국외교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수의 국내 논문이 있지만, 대부분 한국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본 논문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해양력이 지닌 의미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해양공간의 성격과 중국의 해양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나아가 이것이 한국의 해양 전략에 어떤 의미를 제공하는 것인 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 연구방법론의 일환으로 마한이 주장한 해양력의 개념과 해양력이 갖는 지정학적 의미를 밝힌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성장과 동아시아 해양 공간의 구획 문제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다룬다. 지난 냉전기에 미국의 아일랜드 체인(Island Chain) 전략이 중국의 도련선(島鏈線) 전략으로 구성되면서 동아시아 해양공간에 침투되는 문제를 다룬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도련선과 21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해양공간의 성격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동아시아 해양공간에 구획된 도련선의 성격 및 한계점을 미국과 중국의 창과 방패논리 속에서 밝힌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중국의 해양력에 기초된 지정전략 문제를 평가하면서, 한국외교에 직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Ⅱ. 마한(A.T.Mahan)의 해양력(Sea Power)과 지정학적 성격

1. 해양력에 대한 인식 및 구성 요소

해양이 역사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왔고, 현재에도 그 역할이 계속되고 있다. 해양의 중요성을 언급할 때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마한

2) 경로의존성이란 한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더 나은 대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거 또는 전통적인 관행에 기초해서 기존의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www.kci.go.kr

(A.T.Mahan, 1840-1914)이다. 미국의 해군장교 출신인 마한은 제26대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T.Roosevelt)의 절친한 친구이자 그의 해군문제 자문 위원이었다. 마한은 해양력 개념을 통해 서양의 근대사를 개괄하고 있다. 마한은 강대국이 되는 길은 해양이라는 긴 상업통로를 장악하는 것이 그 요체라고 본다. 지중해 연안국가가 고대 세계사에서 힘의 중심이었음을 강조하면서,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영국이 해양 국가이며 해양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국가라고 했다(이기탁 1997, 104).

마한이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660-1783』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유럽과 미국의 역사를 검토할 목적이었다(김주식 1999, 885-886). 그는 각 국가들이 해양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용했는지에 따라 세력의 판도가 변화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 책은 미국의 새로운 해군 건설에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해양력이라는 용어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지만, 마한은 협의의 개념으로 해군력을 구체적으로는 제해권을 의미했다(Modelski & Thompson 1988, 9). 광의로는 해운력과 해군력이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Mahan 1925, 28). 마한은 해양력의 가장 핵심 요소로 제해권을 중심으로 한 해군력에 두고 있다.

해양력은 해군력과 해운력, 그리고 해양자원 등이 포함되는 종합적인 해양관리 능력을 의미한다. 해양력은 해양을 이용하고 통제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해양을 보존 및 보호하는 능력까지도 포함한다(Cuyvers 1993, xv). 해양력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결합되는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해양력은 해군력+해운력+수산력+해양개발력+해양환경보호력 등의 총합이다(김성준 1998, 350). 해양력을 상기와 같이 정의할 때, '해양력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해양을 이용할 수 있는 총 능력'(Gorshkov 1979, 13)이 된다.

마한에 의하면, 세계의 강국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바다를 제압하여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다. 마한은 바다를 '무역로'라 불리는 해상교통 망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간으로 인식했다. 육상수송보다 수상수송이 더 쉽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해운업에는 보호가 필요하다. 그 보

www.kci.go.kr

호 때문에 해군이 필요했다. 또한 해운업을 위해서는 항구가 있어야 하며, 식민지와 상업 항구는 물론 중간기지도 필요했다. 해운업과 그것을 보호하는 데 충분한 해군력, 생산물을 소비하는 식민지 등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생산・해운・식민지로 구성되는 해양력의 세 가지 고리를 소유해야 하는 것이다. 해양력은 바다를 관리하면서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 해양에서 운항할 수 있는 항구(기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시되었다. 마한의 논리에 따르면, 해양력은 함대+상선단+해양 군사기지가 결합된 것이다(Гаджиев 1996, 170-171).

마한에 따르면, 바다는 교통로이며 무역로 역할을 담당한다. 무역의 확대를 통해서 강대국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기 나라가 생산한 상품은 자기 나라의 배를 이용해 수송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많다. 따라서 강력한 상선대를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상선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해군이 필요했다. 마한은 강력한 함대의 형성이 해양력 증대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마한은 해양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식민지 건설을 주장한다. 마한은 전쟁을 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해군기지를 확보하는 것이라 했고, 기지로 활용될 수 있는 식민지 확보를 중요시했다. 식민지가 해외에서 한 국가의 해양력을 뒷받침해 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이다(김주식 1999, 83).

마한의 교리에 나타난 인식의 출발점은 해양력이 국가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해양력의 역사는 국가 간 대결의 역사이며, 상호경쟁의 역사이며, 전쟁으로 치닫는 무력의 역사이다. 왜냐 하면 국가들은 자국과 자국민을 위해 더 많은 힘과 부를 축적하려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충돌이 전쟁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힘과 부는 바다를 통한 무역에 크게 의존되기 때문에, 바다를 통한 국가 간 대결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마한은 해양의 지배자가 세계 제국이 될 수 있음을 갈파하면서 해양력을 통한 '바다의 지배'를 역설했다. 바다의 지배를 위해서 해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정학'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분석 방법과 주요한 결론은 지정학의 그것과 거의 일치했다(Тихонравов 2000, 70).

www.kci.go.kr

마한이 해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당시, 국제무대에서 해양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해양력 중시 경향에도 불구하고, 마한의 논리는 중요하게 취급되지 못했다. 미국의 에졸드(T.Etzold)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마한의 연구 결과물들은 읽혀지기보다 인용되고 있을 뿐이며, 그의 이론이나 사상도 연구・검토되기보다는 인용・참조되는 수준에 그쳤다(Etzold 1915, 38). 마한은 해양을 무대로 하는 인간 행위를 분석하는 해양사 연구가 역사학의 관심 밖에 놓이게 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해양의 사정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며, 해양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도 특별한 지식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해양 전문가들은 단순히 사건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임무를 축소시키는 데 만족했기 때문에 해양사에 관련된 문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Mahan 1925, iii, v).

2. 해양력의 지정학적 성격

해양력은 해양을 관리할 수 있는 총 능력을 의미하며, 해양을 통한 이동의 자유가 확립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16세기말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활동했던 영국의 랠레이(W.Raleigh)는 “바다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의 교역을 장악하고, 세계의 부를 장악한다. 세계의 부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장악한다.”고 갈파했다(이대희·최연구 옮김 1997, 55). 해양 지향적 랠레이의 논리는 영국으로 하여금 해양 정책을 체계화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그의 논리가 영국의 외교정책에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마한은 영국의 해양 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면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 국력을 갱신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바다이다. 바다를 장악하기 위해 해군이 필요하고, 해군이 강한 나라가 해양세력이다. .... 영국이 세계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이 18세기 초부터 2차 대전까지 바다에 축을 둔 지정학적 관점을 추종했기 때문이다. 해양의 핵심 통행

www.kci.go.kr

> 거점(지브랄타 해협·희망봉·수에즈·호르무즈·싱가포르 등)을 확보함으로써 영국은 해양에서 지배력을 확보했다. ....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영국은 전략거점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했다(최연구 1999, 330-331재인용).

마한은 대영제국이 막강한 해군의 힘으로 주요 해양을 지배했기 때문에 19세기 말에 대국의 위치를 굳혔다고 보았다. 마한은 영국의 해양 중시정책에서 교훈을 얻어 바다와 세계 지배라는 자신의 논리를 전개했다. 마한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논리 속에서 제해권 확보를 강조했다(Mahan 1962, 320-325). 제해권을 확보해야만 상선의 안전한 활동이 보장될 수 있고, 접경한 적의 영토나 적의 통상로를 파괴할 수 있으며, 아군 측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한은 해양력의 개념을 '해양무역에 있어서의 자유에 있다'고 보고, 군사 활동은 무역의 조건들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인식했다(Дугин 1997, 52, 54).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과 해협에 대한 지배는 그 국가의 해양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마한에게 있어 해양력은 국가의 힘과 운명에 직결되며, 강한 해양력을 가진 국가는 인류 역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Dougherty and Phaltzgraff 1990, 60). 마한은 강한 해군력과 전략적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계지배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마한이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660-1783』을 준비 및 출간하게 된 목적에는 미국이 해외로 팽창하기 위해서 강력한 해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마한은 위 저서에서 미국의 해외기지가 적다는 사실을 우려했다. 마한의 논리에서 식민지와 식민지 거점들은 그 성격상 때로는 상업적이었고 때로는 군사적이었다. 식민지 획득은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마한은 해군력 확장을 통해 미국이 해외로 팽창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마한은 미국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시킴으로써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Mahan 1970, 21-22). 마한은 "이제 대륙적 팽창이 완수된 만큼, 미국은 해양제국 건설을 위한 기지

www.kci.go.kr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Brzezinski 지음, 김명섭 옮김 2003, 20). 마한은 전쟁을 사업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마한은 "군인들은 전쟁이 싸움이 아니라 사업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Mahan 1907, 283)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한은 미국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마한의 주장은 미국의 많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력을 통해서 이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거의 공식화시켰다. 루스벨트(T.Roosevelt) 대통령이 열렬한 마한의 신봉자였으며, 마한의 사상이 당시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 원리로 채택되기도 했다(김순규 2000, 65). 마한의 논리가 미국의 태평양 강화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마한의 논리는 미국이 제1의 해양국가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마한의 사상과 현실이 접목되면서, 미국이 장악한 주요 항로는 다음과 같다.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북대서양 항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지중해 항로, 희망봉을 통과하는 대양개방 항로 등으로 이루어지는 북대서양·인도양 항로, 일본을 지나 홍콩·필리핀·싱가포르 등을 잇는 북태평양 항로, 하와이·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를 잇는 태평양 항로 등을 들 수 있다.

마한은 해양문명을 위협하는 국가로 러시아와 중국을 우선적으로 지적했고(Тихонравов 2000, 73), 이들 국가의 팽창정책을 저지할 것을 주문했다.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하게 되면, 유럽 해양세력들의 무역통로가 위협받기 때문에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Mahan 1905). 그리고 중국이 육지나 바다를 통해 유럽으로 진출한다면 미국은 유럽문명의 보호자로서 이것을 막아야 했고, 중국을 막는 전진기지로 하와이 점령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와이는 태평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해양세력의 전진기지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한은 일본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유럽 해양세력의 동반자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김우현 2001, 73 재인용).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럽문명을 받아들여 어느 정도 서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섬나라라는 지리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유럽 해양세력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일

www.kci.go.kr

본으로 하여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여 아시아 대륙에서 세력균형을 이루게 하고, 미국은 태평양에서 해양세력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러한 논리가 일본으로 하여금 해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21세기 현재 미국 주도의 세계평화를 의미하는 Pax Americana 논리가 국제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 중심의 Pax Sinica가 동아시아 해양공간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확장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확장이 지정학적 현안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해양력 중심의 국제정치 무게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주요 게임 참가자들이 아시아에 분포되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인도양[3]을 넘어 태평양과 주변의 내륙 공간에서 강력한 게임 참가자들로 구성되는 세력권 확장경쟁이 격화될 것이다.[4] 해양력 확장과 함께 인도양과 태평양 주변으로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중국은 이미 아시아의 역학관계에 커다란 지정학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Ⅲ. 중국의 성장과 동아시아 해양 공간의 지정학적 구획

해양력 없는 국가는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될 수 없다는 마한의 교리가 헤게모니 강국과 강력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계속적으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Michael Pugh 1996). 해군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지위와 국력의 도구로 간주되어 왔다(Harold J. Kearsley 1992, 21-23). 이에 따라 바다에 대한 접근, 무역로 통제 및 항만 배후지 개발 등이 제국의 부상과 쇠퇴의 열쇠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마한의

3) 인도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교통로(Sea Lane)가 집중 및 교차하는 곳이다. 인도양은 유럽과 극동을 잇는 해양에서의 유일한 고속도로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인도양 진출은 중동의 석유지대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럽과 극동지역으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李基鐸 1997, 117-118).

4) 일본은 세계의 주요 강국이며, 미-일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일등국으로서 이에 준하는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지역적 지배력에 대한 열망을 숨기면서 미국의 보호 아래 있다. 따라서 일본을 독자적인 지정 전략적 게임 참가자로 분류할 수는 없을 것이다.

www.kci.go.kr

교리가 건강하게 살아 숨 쉬고 있다(Michael Pugh, 1996)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1세기를 전후하여 마한의 논리가 중국의 도련선 설정과정에 투영되어 왔다.

1. 아일랜드 체인(Island Chain) 전략과 동아시아

중국에서 도련선이라는 이름으로 재구성된 아일랜드 체인 전략(Island Chain Strategy)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외교정책 분석가이며 국무장관을 역임한 덜레스(J.F.Dulles)[5]가 대륙세력에 대한 전략적 봉쇄를 위해 처음 주장했다(Hiroyuki Umetsu 1996, 98-118). 당시 미국의 안보정책이 유럽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소련 봉쇄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아일랜드 체인 전략이 미국 안보정책의 핵심 의제가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의 상황은 달라졌다. 미국의 안보정책이 중국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고, 중국 분석가들이 아일랜드 체인 전략 개념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략 개념이 미군에 의해 둘러싸여 있을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를 증폭시켰고, 대만의 지리적 및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일랜드 체인전략이 중국 해군의 성격과 전략을 결정하고, 경제정책에서 해군의 역할에 주목하도록 했다(Toshi Yoshihara 2012, 293-314).

당시 덜레스가 주장한 아일랜드 체인전략은 3중 방어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퍼스트 아일랜드 체인의 핵심부분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대만이었고, 남중국해 남서부의 보르네오해(Borneo Sea)와 북부 필리핀에서 쿠릴 섬까지 이어졌다. 첫 번째 아일랜드 체인은 소련과 연합된 사회주의 국가들을 막는 최초의 사슬이었다. 두 번째 아일랜드 체인은 태평양 북서부에 있는 미국령 마리아나 제도(Mariana Islands)에서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Ogasawara Islands)[6]와 오가사와라 제도 서남쪽에 있는 3섬으로 된 일본의 화산 열도[7]로 연결된다. 그것은 태평양의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

5) 존 덜레스(J.Dulles)는 1953년부터 1959년까지 미 국무 장관을 지냈다.

6) 일본 본토에서 남으로 약1,000㎞ 떨어진 서태평양에 있는 제도이다.

www.kci.go.kr

기 때문에 미국을 위한 두 번째 전략 방어선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이 일본과 대만을 잇는 제1아일랜드 체인과 그 외곽 섬을 잇는 제2아일랜드 체인을 설정해 소련과 중국 등 대륙세력의 영향력 확장을 저지해 왔다. 제3의 아일랜드 체인은 시베리아 동쪽 끝과 알래스카 서쪽 경계지역에 있는 북태평양의 알류샨(Aleutian) 열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연결된다. 세 번째 아일랜드 체인의 핵심지대는 미국의 하와이 제도였다(Kulshrestha 2016).

미국에서 아일랜드 체인 전략이 설계될 당시인 1950년대 중반부터 중국이 해양력 증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1953년 "우리는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울 목적으로 강력한 해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했고, 1979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연안 방어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투 능력을 갖춘 강력한 해군"을 주문했다. 그리고 장쩌민(江澤民)은 1997년 해군에게 "만리장성을 건설하라"고 촉구했다(Cha Chun-ming 1999). 이러한 기간 동안인 1982년 중국의 해군사령관이었던 류화칭(劉華淸)[8] 제독이 중국의 해양 전력을 논하는 자리에서 도련선 개념을 도입했고, 이 시간 이후부터 중국의 해양력 증강 움직임이 보다 체계화되었다.

2. 중국의 도련선(島鏈線)과 동아시아 해양 공간

소련의 고르쉬코프(S.Gorshkov)[9]가 주장한 해양력 개념에서 영향을 받은 중국의 류화칭 제독이 21세기 후반기까지 전 세계에 도달 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군건설을 주장했다. 당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류화칭에 의해 1982년 윤곽이 드러난 중국의 3단계 해군육성전략에는 해군이 중국 연

7) 일본 남쪽으로 약1100km 떨어진 서태평양의 3개 화산섬을 지칭한다. 가장 큰 것은 1945년 미군이 점령한 뒤 1968년 일본으로 돌아온 이오지마(Iwo Jima)이다.

8) 류화칭(Liu Huaqing, 1916.10~2011.1.14)은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을 역임했으며 중국의 해군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다.

9) 고르쉬코프(S.Gorshkov)는 해양력을 해양개발력, 해운력, 수산력, 해군력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해양력은 상선대, 어선단, 탐사선단, 대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과학, 대양과 연관된 제(諸)산업, 해양산업과 관련된 과학자·공학자·기술자, 해군력 등에 의해 좌우된다(S.Gorshkov 1979, 14).

www.kci.go.kr

안을 벗어나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대양에서의 독자적인 작전능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제1단계인 2010년까지는 필리핀에서 대만과 오키나와까지 뻗어있는 최초의 방어라인에서 군사 활동이 가능한 해군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2010년까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묶는 첫 번째 도련선까지 해상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까지인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괌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방어라인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해군을 육성하도록 했다. 2020년까지는 쿠릴열도,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10], 필리핀 해역, 괌 해안에서 서쪽으로 346㎞ 떨어진 마리아나 제도, 팔라우(Palau) 및 인도네시아 군도 등이 포함되는 두 번째 도련선까지 해상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3단계에서는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해군을 건설해 세계적인 해군을 육성하는 것이다(H.J.Dooley 2012, 71; B.D.Cole 2011, 48-51). 늦어도 2050년까지 항공모함 전투단 훈련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수준까지 그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이론가들이 해상경계선을 따라 3개의 도련선을 설정하고 있지만, 대외에 공개되고 있는 도련선은 2개 이다. 첫 번째 도련선은 대만과 류큐제도(Ryuku Islands)[11]를

<그림 1> 도련선 구획도



출처: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1: 23.

10)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는 일본의 도쿄 남쪽으로 약 1,000㎞ 떨어진 군도이다. 영어권에서는 보닌 제도(Bonin Islands)라 부른다.

11) 류큐제도(琉球諸島)는 동중국해와 필리핀 해 사이에 위치해 있다.

www.kci.go.kr

포함하고, 두 번째 도련선은 일본에서 괌까지 이어진다(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2, 40). 제2도련선은 사실상 일본 오키나와와 한국에 기지를 두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며, 미국의 태평양 독점 지배를 저지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는 도련선은 동아시아 해양에서 중국의 주도권이 보장되는 제2도련선까지이다. 제3도련선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미국의 저항이 보다 강력히 전개될 것을 우려해 발표를 미루어 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이 설정한 아일랜드 체인을 동아시아 해양공간을 관리할 목적에서 도련선으로 재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외부 위협을 제1도련선에서 저지한다는 전략이 1985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2000년 이후 기존의 근해방어권을 제2도련선으로 확장했다. 향후 중국이 하와이에 연하는 제3도련선 까지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해양력을 구비하게 된다면, 중국의 해양 전략이 원해적극방어전략으로 수정될 것이다(김열수 2012, 181). 현재 중국은 제1도련선으로 진입하고 있는 미국의 접근을 차단함과 동시에 동중국해에서 활동하는 미 해군 잠수함을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중요한 해상교통로이다. 미국의 아시아 방위선과 중국의 도련선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권 확장 경쟁이 보다 첨예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상기 도련선에 기초된 중국의 해양진출 전략을 미국에서는 반(反)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이하 A2AD) 정책으로 부른다. A2AD 전략이 2001년 미국의 「4개년 국방정책 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현재에는 거의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2]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2007년에 준비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12) 반접근(Anti-Access, A2)이란 "장거리에서 적이 작전지역으로의 접근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이나 능력"을 의미하며, 지역거부(Area Denial, AD)란 "비교적 단거리에서 작전지역 내에서의 적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동이나 능력"을 말한다(Department of Defense, 2012: 6). 특히, A2전략이란 "적의 지원 전력이 전역으로 전개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특정 지역에서 작전하는 것을 방지하며, 적으로 하여금 싸우고자 하는 분쟁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전략에 해당된다(Cliff 2007, 11).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미국

www.kci.go.kr

일본의 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 해협을 잇는 제1도련선과 오가사와라 제도~사이판~괌~파푸아뉴기니를 잇는 제2도련선이라는 해상 방어선을 설정해 미군이 도련선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봉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중국의 A2AD 전략이라고 했다(Cliff 2007).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도련선 전략은 동아시아 도서를 중심으로 방위라인을 설정해 해양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최종적으로는 미국과 태평양을 반분하겠다는 중국의 지정전략 그 자체가 된다.

Ⅳ. 도련선 전략의 성격과 한계

1. 도련선 전략의 성격

2000년 이후 다수의 중국 전략분석가들은 국가의 영향력이 바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음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중국 전략가들은 냉전기에 소련이 고르쉬코프의 주장에 따라 해군을 발전시켜 왔다고 지적했다(Zheng Weiping and Liu Minfu 2005, 147). 분석가들은 마한의 사상을 인용해 강력한 해군 건설뿐만 아니라 강력한 상선과 항구, 조선업 육성을 강조했다(Dean Cheng 2015, 1-8). 중국이 전략적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해상접근을 포함한 해상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Xu Jian 2014)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해양력은 군사영역의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선 등 무역을 위한 해군력 증강을 포함한다. 중국 해군이 마한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Erickson, Goldstein, and Lloyd 2009, 439, 449~50; Dooley 2012, 69).

중국은 해군력 강화와 함께 조선업을 육성시키려 한다(Zhang Jing 2014, 150-151, 201). 2010년 후진타오 주석은 해군장성들과의 간담회에서 '새로운 시대에 중국의 역사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이 제1, 제2도련선 안으로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투입된 군사력도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김열수 2012, 182-183).

www.kci.go.kr

해군력 구축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중국함대는 중국의 국익을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해군이 부여받은 중요한 임무라고 했다. 현재 중국의 당·정·군 지도자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해상교통로 확보와 동/남중국해에 매장된 막대한 천연자원 개발 등 다양한 국가적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향후 서태평양을 넘어 동태평양까지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해군력 증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정재흥 2013, 7).

<그림 2> 중국의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전략



출처: 남문희 2011.

중국은 태평양과 함께 인도양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은 투자와 지원을 통해 인도양에 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주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s)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목걸이에 포함되는 지역은 파키스탄의 과다르(Gwadar) 항, 방글라데시의 치타공(Chittagong) 항, 스리랑카의 함반토타(Hambantota) 항, 미얀마의 코코군도(Great Coco)와 휑귀(Hainggyi), 태국의 송클라(Songkhla) 항, 캄보디아의 쿠크섬(Cook Island) 등이다. 이 지역을 연결하는 선이 진주목걸이를 연상시킨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Pehrson 2006). 진주목걸이 전략은 자원수송 거점과 상업용 항구를 개발하는 것이 최초의 목적이었으나, 군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김열수 2012, 182). 중국은 진주목걸이 노선이 지나는 주요 지점

www.kci.go.kr

에 해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근해방어 전략이나 진주목걸이 전략을 A2AD전략으로 명명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이 인도양과 태평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다. 2011년 3월 중국 국방부가 발표한 2010년 국방백서에서 해양권익 수호를 위한 군비증강 방침을 공식화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국방비가 약 1,200억 달러로 미국(7,056억 달러)의 1/6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미국의 절반 수준인 2,400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해군을 국가핵심이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하면서 전체 국방비의 약 1/3 이상을 해군무기 현대화 및 전투력 강화에 투자하고 있다(정재흥 2013, 1). 잠수함은 많은 국가들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억지력의 하나로 활용되기 때문에(Tan Rukun 2012, 125), 잠수함을 비롯해 각종 군장비 현대화를 통한 해군력 증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항공모함, 수상전투함, 잠수함 등 현대화된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해군의 적극적인 근해방위전략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서태평양의 미국령 괌(Guam)과 마리아나 제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정재흥 2013, 6).

<표 1> 중국의 공식 국방예산과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국방예산 비교

국가	예산(10억 $)		
	2012	2014	2016
China (Official Budget)	106.7	136.3	144.3
Russia (National Defense Budget)	61.3	76.3	46.2
Japan	58.0	47.6	47.2
India	45.5	38.2	37.0
Republic of Korea	29.2	33.4	32.8
Taiwan	10.8	10.3	10.5

출처: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3, 2015, 2017의 내용을 중심으로 필자 재구성

2014년까지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했지만, 중국 해군이 2010년 직전까지 첫 번째 도련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오가

www.kci.go.kr

사와라~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를 잇는 제2도련선의 제해권을 2020년을 전후한 시점까지 장악하고, 2040~50년에 미국의 태평양 독점 지배를 저지한다는 목표아래 해양력 증강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계선을 최소 괌 외곽, 가능하면 하와이로 정하려 한다. 미국의 역내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해양통제권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군사현대화 계획에는 서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거나 운영될 수 있는 적대국의 해군력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개발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미국 해군력이 동아시아 주요 해역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게 되면, 그동안 증강시켜 온 해군력과 공군력을 활용해 역내 군사패권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갈려있을 것이다(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7, 49).

2. 도련선 전략의 한계

미국의 영향력은 지구촌 바다를 관리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이다. 미국의 영향력은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확장되었고, 유라시아 서남부 지역(카스피 해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유라시아의 남부 및 동부지역인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강력히 투사되면서 중국의 성장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해양력은 지난 냉전기의 그것에 더해 탈냉전과 함께 더욱 더 강력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도련전 전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의 해양력과 도련선 내부 국가들의 저항 움직임이 강력해지면서 도련선 전략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해양 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이 태평양의 괌과 수많은 삼각형 전진기지를 형성해 동아시아 해역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괌-일본-한국, 괌-다윈(Darwin)-진주만, 괌-대만-일본 삼각형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이러한 해양 전략이 지난 냉전기부터 태평양 연안에 견고하게 구축되어 왔고, 이러한 장치가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의 도련선 지정전략에 제동을

www.kci.go.kr

걸고 있는 것이다.

도련선 내부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반항 움직임이 또 다른 이유이다. 일본이 2013년부터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의 해외 팽창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해 도련선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안보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필리핀은 남사 군도와 서사 군도 문제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미국과 합동

<그림 3>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동아시아(태평양) 해역



https://cont.ws/uploads/pic/2016/1/Map-RGB_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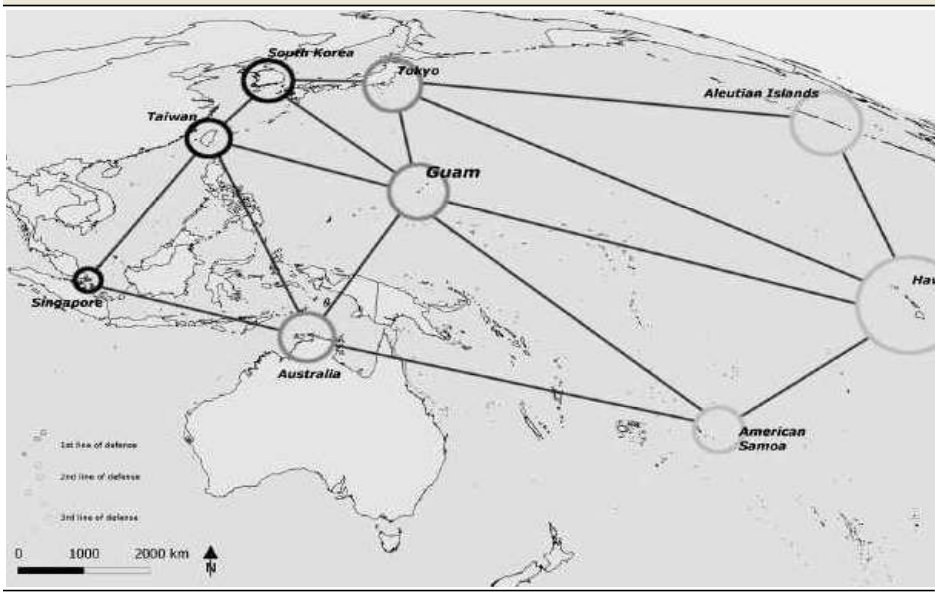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미 해군 기지를 다시 유치하고 있다.[13] 베트남은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도입하고, 미국과 합동훈련 및 안보파트너십

13)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동북쪽으로 약100㎞ 떨어진 수빅 만(Subic Bay) 기지는 인근의 클라크 공군기지(Clark Airbase)와 함께 지난 냉전기 때 미국의 군사시설이었다. 1992년 필리핀이 수빅만 기지의 임대를 거부하면서 동년 11월 마지막 미 해군함정이 수빅만을 떠났다. 필리핀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미국과의 협력을 다시 강화하도록 했다. 미국과 필리핀이 2015년 방위협력확대협정을 체결했고, 2016년 1월까지 미국이 필리핀에 다수의 군사기지를 확보했다. 미군의 필리핀 철수 24년 만에 다시 수빅 만에 미국의 해군기지가 들어섰다.

www.kci.go.kr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제1도련선 외부에 위치한 호주는 상대적으로 위협이 덜하지만, 제2도련선이 호주 EEZ를 포함하고 있어 중국의 도련선 전략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림 4> 미국의 태평양 지역 삼각형 안보전략 구조



출처: Tanguy Struye de Swielande, 2012: 84.

결국 중국의 해양력이 태평양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의 저항이 완강하다. 남중국해의 남사군도 갈등이나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등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이 자신의 도련선 전략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의 리더십 발휘가 절대적이지만,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요국들이 미국과 군사동맹국들이며 중국의 성장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과의 영토갈등 및 민족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중국의 도련선 전략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정치엘리트 및 전략가들은 상기 도련선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력권 확장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중국 중심의 아시아 신질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 및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양세력에 의존된 주변 국가들의 안보전략이 희색 성향을 보이는 방향으로

www.kci.go.kr

수정되기도 한다. 국제정치무대가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상황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세력권 확보전략이 계속된다면, 도련선 전략과 미국 등 해양세력의 중국 봉쇄전략이 태평양에서 충돌될 가능성이 앞당겨질 것이다.

Ⅴ. 끝맺는 말

미국의 국무장관을 역임한 덜레스가 1951년 아일랜드 체인 전략을 주장했고, 이러한 논리가 1982년 중국의 해군 사령관이었던 류화칭 제독에 의해 도련선 개념으로 재포장되었다. 동아시아 해양 공간에서 확장되고 있는 중국의 도련선 전략이 20세기 전후시기에 일본이 활용했던 대동아공영권 논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그 대상지가 동아시아 해양공간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도련선 전략은 중국이 자신의 영향력 확장을 위해 동아시아 해양 공간을 지정학적으로 관리하려는 지정전략에 다름 아니다. 2000년 이후, 도련선 개념에 기초된 중국의 해양진출 전략을 미국에서는 A2AD로 부르면서 대응하고 있다.

G2로 부상한 중국이 도련선 개념과 함께 태평양으로 진출을 시도하게 되면서, 미국 등 해양세력에 의한 중국 봉쇄라인이 동아시아 해안 공간과 그 주변부에 설치되고 있다. 중국의 해양력 확장과 동아시아 해양 공간에 대한 관리 움직임은 지난 20세기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다. 동아시아 해양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지정전략을 구사하는 행위자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을 뿐 1세기 전과 유사한 모습의 지정학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1세기 전의 일본과 마차가지로 현재의 중국이 동아시아 해양 수송로를 안전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자신의 세력권을 동일 지역으로 확장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중국의 도련선 확장 전략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도련선 전략이 보다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2016년 3월 4일 한미 양국이 공동

www.kci.go.kr

실무단을 출범시켜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동년 7월 8일 한미공동실무단이 중국·러시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에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도련선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지정전략이 충돌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의 하나이며, 해양세력에 의존된 한국외교의 경로의존성이 선택한 결과물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중국이 제2도련선으로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그리고 미국이 동아시아 해양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 및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의 선택이 양국의 지정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국은 미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러하다. 중국이 도련선 전략을 보다 강력히 추진한다면, 미국이 일본을 더욱 더 중시하면서 일본의 우경화 및 군사대국화를 묵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강력한 국가들에 의해 포위되는 형국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 외교가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동맹을 지속하든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통해 안보라인을 새롭게 구축하든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이웃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과 미국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해야 될 것이다. 소련 해체와 함께 국제질서 구조가 변화된 상황에서 한국외교가 여전히 해양세력에 의존된 경로의존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림직한가를 고민해야 될 것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과 일본과의 과거사 인식 문제 등을 고려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도련선 전략에 대응하는 한국의 수준은 미국에 의한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보다 주도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속에서 구체화되어야 될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김성준. 1998. “알프레드 마한(A.T.Mahan)의 해양력과 해양사에 관한 인식: 그 의의와 한계를 중심으로.”『해운물류연구』 제26호. 331-370.

김순규. 2000.『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박영사.

김열수. 2012. "미국의 신국방전략과 한국의 대비 전략."『국가전략』 제18권 2호. 171-194.

김우현. 2001.『세계정치질서』. 서울: 한울.

김주식 옮김. 1999.『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2』. 서울: 책세상.

남문희. 2011. “중국의 나진 진출을 경계하라.”『시사IN』 제175호.

이기탁. 1997.『현대국제정치이론』. 서울: 博英社.

이영형. 2006.『지정학』 . 서울: 엠애드.

정재흥. 2013. "중국의 부상과 해양군사전략 재편," *INChinaBrief.* vol.253, 1-12.

최연구. 1999. “동유럽·발칸 문제의 지정학적 고찰.”『동유럽발칸학』 창간호, 327-342.

필립 모로 드파르쥐 지음, 이대희·최연구 옮김. 1997.『지정학 입문. 공간과 권력의 정치학』. 서울 : 새물결.

K.A.베슬러 저, 安在鶴 역. 1995.『정치지리학』. 서울: 명보문화사.

Z. Brzezinski 지음, 김명섭 옮김. 2003.『거대한 체스판. 21세기 미국의 세계 전략과 유라시아』. 서울: 삼인.

Brzezinski, Z. 1986. *Game Plan.* N.Y.: The Atlantic Monthly Press.

Cha Chun-ming. 1999. “Chinese Navy Heads Toward Modernization.” Ta Kung Pao (Hong Kong: 11 April 1999), B6, in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ive-China (FBIS-CHI)-1999-0418.

Cliff, R. et al. 2007. *Entering the dragon's lair: Chinese antiaccess strateg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Cohen, S.B. 1963. *Geography and Politics in a World Divided.* N.Y.: Random House.

Cole, B.D. 2011. “Drawing Lines at Sea,”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www.kci.go.kr

Proceedings. Vol.137, No.11, 48-51.

Cuyvers, L. 1993. *Sea Power: A Global Journey.*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Dean Cheng. 2015. "China's Pivot to the Sea: The Modernizing PLA Navy." *BACKGROUNDER*, NO. 3084: 1-8; http://thf-reports.s3.amazonaws.com/2015/BG3084.pdf(2017/08/18)

Department of Defense. 2012.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Version1.0.*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Dooley. H.J. 2012. "The Great Leap Outward: China's Maritime Renaissance."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26, No. 1. 53-76.

Dougherty J.E. and Phaltzgraff, R.L. Jr. 1990.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3rd Edition N.Y.: Harper & Row, Publishers.

Duus, P. 2008. "The Greater East Asian Co-Prosperity Sphere. Dream and Reality."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Volume 5, number 1, 143-154.

Erickson, A.S. Goldstein, L.J. and Lloyd, C. eds. 2009. *China Goes to Sea: Maritime Transformation in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Etzold, T.H. 1915. *Is Mahan still Valid?*, Proceeding, Jan-Feb. US. Naval Institute

Gorshkov, S. 1979. *The Sea Power of the State.* Pergamon Press.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https://www.wikiplanet.click/enciclopedia/en/(2017/08/24).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http://www.bill-gordon.net/papers/coprospr.htm(2017/08/29).

Kearsley, H.J. 1992. *Maritime Power in the Twenty-first Century.* Aldershot, UK: Dartmouth Publishing.

Kulshrestha, S. 2016. "OPINION | Tonga and the Third Island Chain" *IndraStra Global*, no. 02: http://www.indrastra.com/2016/02/OPINION-Tonga-and-Third-Island-Chain-002-02-2016-0070.html (2017/08/10).

Mahan, A.T. 1907. *From Sail to Steam.* New York: Harper & Brothers.

Mahan, A.T. 1905. *The Problem of Asia and Its Effect upon International Policie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www.kci.go.kr

Mahan, A.T. 1925.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Mahan, A.T. 1962. "The Influence of seapower upon history" in Harold and Margaret Sprout,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D.Van Nostrand Co.. 320-325.

Mahan, A.T. 1970. *The Interest of American in Sea Power: Present and Future.* Kennikat Press.

Modelski, G. & Thompson, W. 1988. *Sea power in Global Politics, 1494-1993* (Macmillan).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1,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2.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2.*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3.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5.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7.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

Pehrson, C.J. 2006. *String of Pearls: Meeting the Challenge of China's Rising Power across the Asian Littoral* (*Strategic Studies Institute*).

Pugh, M. 1996. "Is Mahan Still Alive? State Naval Power in the International System," Journal of Conflict Studies, Vol 16, No 2; https://journals.lib.unb.ca/index.php/JCS/article/view/11817/12641(2017/08/30)

Tan Rukun. 2012. *Operational Strength Construction Teaching Materials.* Beijing: Military Science Publishing House.

Tanguy Struye de Swielande. 2012. "The Reassertion of the United States in the Asia-Pacific Region," *Parameters*, Spring, 75-89.

Umetsu, H. 1996. "Communist China's entry into the Korean hostilities and a US proposal for a collective security arrangement in the Pacific offshore island chain,"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15, №, 2, 98-118.

www.kci.go.kr

Xu Jian. 2014. “Rethinking China’s Period of Strategic Opportunity,”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May 28; http://www.ciis.org.cn/english/2014-05/28/content_6942258.htm(2017/09/25)

Yoshihara, T. 2012. “China's Vision of Its Seascape: The First Island Chain and Chinese Seapower," *Asian Politics & Policy*, Volume 4, Issue 3, 293-314.

Zhang Jing. 2014. *Maritime Military Strategic Concepts.* Beijing: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ublishing House.

Zheng Weiping and Liu Minfu. 2005. *Discussions on the Military’s New Historic Missions.* Beijing: People’s Armed Police Publishing House.

Гаджиев, К.С. 1996. “Геополитика: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е содержание дисциплины,” *Полис,* no 2, 169-183.

Дугин, А. 1997. *Основы геополитик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е будущее России.* М.: Арктогея.

Тихонравов, Ю.В. 2000. *Геополитика.* М.: ИНФРА-М.

투고일 : 2018년 1월 31일 · 심사일 : 2018년 2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3월 8일

* 이영형은 Moscow St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재)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부설 국제평화연대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지정학』 (2006), 『러시아, 정치체제 구축과 발전전략 I. 정치체제 구축 편』 (2012), 『러시아, 정치체제 구축과 발전전략 II. 정치과정, 개발정책, 안보정책』 (2012), 『중앙아시아 지역연구: 공간에 대한 인식과 가치』 (2012) 등 10여권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www.kci.go.kr

<Abstract>

Geopolitical Interpretation of China's Island Chain Strategy

Yeoung-Hyeong, Lee
(International Humanitarian Network Center)

This paper covers the issues including geopolitical effects of sea power on sea space in East Asia and its nature in a perspective of the past and the present.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Sea Power which is emphasized in Mahan's Theory of Insular Dominance and grasps the geopolitical nature of Sea Power. Along with this awareness, it deals with the problem of designated strategic phenomenon that is spreading to the Pacific Ocean with the concept of the Island Chain in China in the 21st century. Around the turn of 20th century, Japan materialized the policy of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which was planned to expand power sphere in sea space in the East Asia based on sea power and China took shape of the concept of Island Chain in the 21st century, which has divided sea space in East Asia. Under the circumstance that China's policy of island chain faced the resistance from countries in the East Asia as well as the USA, the question about whether Korea's policy of depending on sea power is valuable even in the 21st century has been raised.

Key words : Geopolitics, Sea Power, Sea Space in East Asia, Island Chain, Anti Access/Area Denial(A2AD), Triangle Advanced Base

www.kci.go.kr